아동친화 놀이공간 3개 학교에 조성

전주시, 세이브더칠드런 · 도교육청과 학교놀이환경개선사업 MOU 체결… 시민참여 사업으로 진행

아동친화도시 전주시는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국제아동권리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 전라북도교육청과 아동의 놀 권리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 학교놀이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학교놀이환경개선사업은 아이들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들이 하루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안에 친구들과 함께 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에서 3개 기관은 올해 1억 4000만원을 투입해 3개 학교에 아동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아동친화적인 놀이공간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전주시와 세이브더칠드런은 학교놀이환경 개선사업의 설계와 시공 등 사업 전 과정을 함께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대상학교 선정과 아동 놀 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만들어진 놀이공간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정규 놀이시간을 확보해줄 예정이다.

특히 전주시를 비롯한 협약 참여기관들은 사업구상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아동과 학부모, 교사와 함께하는 워크숍을 하는 등 시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아동의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는 놀이 관찰과 이벤트 등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기획해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앞서 3개 기관은 지난해 처음 시행된 학교놀이개선사업을 통해 중산초와 덕일초에 각각 '삥까삥까 놀이터'와 '덕일꿈키움터'를 조성했고 이들 공간은 아이들이 언제든지 찾아가 친구들과 종일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학교 안 아지트로 자리매김했다.

또 시는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를 회복시켜 창의적 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학습에만 매몰됐던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스스로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스스로 행복한 삶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전주형 창의교육 모델인 '야호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또 건지산 조경단 인근 '임금님 숲'과 남고산 인근의 '딱정벌레 숲', 서곡지구 '꼬불꼬불 도토리숲', 천잠산 '베구르르 솔방울숲' 등 아이들이 스스로 몸을 돌보며 숲속에서 자연을 배우며 놀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숲놀이터인 '전주아이숲'도 점차 늘려가고 있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대상자 사전등록제 운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경차 운전자 등은 사전에 한번 등록으로 전주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자동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으로 등록되면 출차 시 자동으로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주차요금 할인 대상자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사전등록 대상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장기기증 등록자, 1000cc 미만 경승용차, 저공해차량 표지 부착차량,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 지방세·국세 모범 납세자, 친절기사 표창 수여자 등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명시된 자다.

사전등록제는 전주시 공영주차장 중 한옥마을(지상·건물), 건산천, 중화산 서신, 삼천, 오거리, 노송천, 서부신시가지(6개소), 실내체육관 주차장 등 무인요금정산시스템이 구축된 16개 공영주차장에 한해 적용된다. 전주종합경기장, 전주동물원, 한옥마을 노상주차장 등 요금징수원이 배치된 유인주차장 3곳의 경우 기존처럼 출차할 때 징수원에게 관계증표를 확인받고 감면·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덕진광장 주차장은 호출 버튼을 이용해 근무자와 통화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전주시청 교통안전과(☎ 281-2355, 2182) 또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 전주종합경기장 내 주차운영부, ☎ 239-2643)에 방문접수하면 되고 장애인복지카드와 국가유공자증, 다자녀카드 등 해당 관계증표와 자동차등록증을 함께 제시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특수학교 설립해야" 특수학교 폐교에 따른 대책 부모회 일동은 23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특수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원도심 지역공동체 활성화계획 수립' 착수

전주시, 사업추진 동장간담회 개최… 수립 3개 동 · 실행 6개 동 선정 지원 예정

전주시는 침체된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주민 스스로 하는 '2018년도 원도심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사업'에 착수했다.

시는 23일 현대해상 5층 회의실에서 전주시 원도심 12개동 동장과 공동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원도심 지역공동체 주민주도 활성화 계획 수립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사업은 침체된 원도심의 각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 오랜 기간 거주해오며 마을이 지닌 자원과 부족한 부분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노송동과 진북동 주민들이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등 현재까지 원도심 6개동에 대한 마을계획이 수립됐고 완산동과 인후2동은 집수리지원과 음악회 등 직접 수립한 마을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올해 마을계획을 수립할 3개 동과 앞서 계획이 수립된 지역 중 실행사업을 추진할 6개 동을 각각 선정해 총 1억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수렴, 마을조사 등을 거쳐 추진되는 만큼 해당 지역에 맞는 마을 의제가 도출되고 주민총회를 통해 필요한 제안사업들이 수립되고 실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원도심 주민들의 마을공동체 의식이 높아지고 주민자치역량도 강화돼 지역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했다. /채규남 기자

'나눔의 안마봉사' 프로그램 운영

안마사협회,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전주시보건소에서

전주시보건소와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안마사들이 함께 진행하는 '나눔의 안마봉사'가 시민들의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전주시보건소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보건소 3층 보건교육실에서 (사)대한안마사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하는 '나눔의 안마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는 매월 대한안마사협회 전북지부 회원 중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안마사들이 10명 이상 참여하고 있다. 안마서비스를 받고 싶은 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전주시보건소와 대한안마사협회 전북지부는 지난해 총 425명의 전주시민들에게 전문 안마봉사 서비스를 제공했다.

장현삼 대한안마사협회 전북지부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피로회복을 위한 나눔봉사를 펼쳐나갈 것"이라며 "안마사를 향한 시민들의 따뜻한 시선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신청 접수

전주시, 2월 7일까지

전주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주택을 수리해주기로 했다.

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18년도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에 참여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등을 오는 2월 7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복권기금 등 총 5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125가구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노후주택의 지붕 개량과 부엌, 화장실, 창호공사,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문턱 낮추기와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등 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편의·안전시설 설치 등이다.

특히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독거노인과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주거복지과(063-281-5247)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덕진서 호성파출소, 강력범죄 예방 방범진단활동

전주덕진경찰서 호성파출소는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범죄취약지역에 대해 방범진단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관내 주유소 17곳을 방문해 주유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점검하고 노후되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신형으로 교체할 것을 요청했다.

윤혜성 호성파출소장은 "최근 과학수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CCTV의 제 기능을 위해 자주 점검하겠다"며 "업주의 자발적인 개선 유도 및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협력방범을 통해 범죄 기회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씨름 선수 지원금 빼돌린 감독 입건

씨름 선수들에게 지원금으로 지급된 돈을 빼돌린 감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도내 한 지자체 산하의 씨름단 감독 A(50)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지자체로부터 씨름단이 지원받은 금액 1억5천만원 중 1천5백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훈련비와 식비 등으로 선수들에게 각각 3만원씩 매일 지급되는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